

종합·해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여야, 공수대결 전열 정비

“정치 공세 차단” “3명+ α 낙마”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여야는 날선 공방전을 펴며 20일부터 펼쳐질 ‘공수’ 대결을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의 경우에는 초점을 차명계좌로 맞추면서 수세에서 벗어나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확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이 내정자를 놓고는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했다.

부를 최종 결정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 내정자를 비롯, 땅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이재준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 “3명+ α”를 낙마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막판 ‘한방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청문 자료 준비 바빠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622호 환노위 회의실에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10명의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발적으로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근근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영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위장전입은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개각을 할 때마다 논란이 있어왔는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우선 청문 대상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거나 반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의혹들을 규명할 당과 함께 보신각에서 조 내정자 파면추구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조 내정자 청문회 참석 여부를 최종 결정기로 했다.

한나라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을”

민주당 “차명계좌 청문 용납 못한다”

檢, 조현우 수사 착수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파문을 일으킨 조현우 내정자 청문회와 관련, 특검을 제안하면서 그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나 역공에 나섰다.

다”며 “이 문제는 역사적 진실의 문제이니 만큼 정쟁대상으로 삼지 말고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언 문제는 특검을 통해 해결하고 더 이상 정쟁 대상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언을 한 당사자도 ‘주간지 보고 한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재단이 ‘차명계좌’를 언급한 조현우 경찰청장 내정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호, 도청직원 가사도우미 시켜”

청문후보자 의혹과 해명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에도 청문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창에 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라 하게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김태호=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지역 언론이 이런 사실을 기사화하려 하자 재정 지원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 측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일로 조 내정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호=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지역 언론이 이런 사실을 기사화하려 하자 재정 지원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 내정자 측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일로 조 내정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지역 언론이 이런 사실을 기사화하려 하자 재정 지원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 내정자 측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일로 조 내정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지역 언론이 이런 사실을 기사화하려 하자 재정 지원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 내정자 측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일로 조 내정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친박 모임 ‘여의포럼’ 해체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밝혀

한나라당 친박계 모임인 ‘여의포럼’을 만든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 모임 해체를 하겠다고 밝힌 뒤 이 모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논의를 하고 있다. 상하이엑스포 관람차 지난 18일 중국으로 떠난 여의포럼 회원 17명은 이번 방문기간 진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조 내정자의 막내 동생이 2004년 총선 직후 조정회사를 차렸는데,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고 실적도 없는 이 회사가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 뉴타운 1지구 공사의 조경설계업체가 됐고, 은평 2, 3 지구 공사도 계속 맡았다”며 “조 내정자의 지역구인 성동구 독성역 조경도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군 복무하며 학위 취득 논란

진수희 친동생 사업 몰아주기 의혹도

이현동 국제청장 내정자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장녀(24)는 국민은행·농협 등 계좌 9곳에 4천6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계좌가 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해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이(친이명박)계와 중도파 의원을 받아들이며 현호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광주교육대학교 (제2기). 개강일시: 토요일 오후반 2010. 9. 4(토) 14:10. 모집기간: 2010. 7. 23(금)~9. 4(토). 수업기간: 2010. 9. 4(토)~2011. 2. 26(토) (6개월 24주). 모집인원: 기초반:30명. 수강료: ₩ 300,000. 문의: 062)520-4243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제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국방부지정 장교직업보도교육기관 한국산업관리공단 직업교육기관.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모집기간: 2010년 7월 28일(수)~2010년 8월 31일. 수강료: 300,000원. 과목명: 제1기 한자지도사 (기초반), 제2기 한문지도사 2급 (기본과정), 한문지도사 1급 (심화과정).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전남대학교 (5기), 광주여자대학교 (11기). 개강일시: 월요일 주간반: 2010. 8. 30(월) 09:00. 모집기간: 2010. 7. 23(금)~8. 30(월). 수업기간: 2010. 8. 30(월)~2011. 2. 21(월) (6개월 24주). 수강료: ₩ 300,000. 문의: 062)530-3873-5